# KÓKK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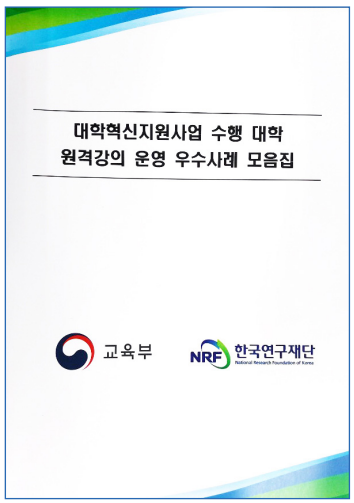
2020 SEP 9
VOL. 222

밀알훈련 (14 일 ) 에 참가한 성서학과 학우들이 세찬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근로체험을 위해 자작나무 숲 근처로 이동하고 있다 . ( 관련기사 4 면 )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 행 인 _ **강우정**
편집주간 _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 우리대학 원격강의 “우수사례” 선정

## 코로나 19 이전에 , 원격강의 시스템 LMS, Panopto 등 도입
## ‘여호와 이레’ ( 하나님의 준비하심 ) 에 놀라움 금치 못해




우리대학의 2020-1 학기 원격강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사례로 뽑혔다. 우수사례 선정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 자율개선대학 131, 역량강화대학 12) 을 수행한 전국 143 개 4 년제 대학이 대상이었는데 그 중 48 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코로나 19 사태로 대부분의 대학 강의가 비대면 원격강의로 전환되면서 각 대학은 초비상 사태로 들어갔다. 다행히 우리대학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 년 8 월에 이미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과 강의저작 및 서비스 지원 시스템 (Panopto) 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전면 원격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부 타 대학들은 보유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강의 중간 중간 화면이 끊기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는 사태 등 우여 곡절을 겪는 과정에도 우리대학의 원격강의는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교수, 교직원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 여호와 이레 ) 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우리대학의 원격강의 우수사례는 ' 강의실 혁신 프로그램 ' 과 ' 교수법 혁신 프로그램 ' 으로 구분, 소개 되었다. ' 강의실 혁신 프로그램 ' 은 전체 강의의 90.9% 를 온라인 원격강의로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전체 교강사를 상대로 신속한 교육지원, 촬영지원, 개발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 주간 실시하여 강의의 질 관리까지도 철저를 기하였다고 평했다. 이런 결과로 우리 대학의 지난 강의평가 만족도는 최근 들어 역대 최고점 (4.717) 을 기록한 바 있다.

' 교수법 혁신 프로그램 ' 의 사례에서는 이성아 ( 기초교육원 ) 교수의 [ 소셜네트워크와 집단지성 ] 과목이 소개 되고 있다. 이 과목은 강의혁신 포트폴리오 개발 프로그램 교과목이었는데 수업계획, 운영, 평가까지 설득력 있게 전개 되었으며 학생 피드백도 긍정적 반응 일색이었다.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공동 ) 이 발행한 우수사례모음집은 전국 각 대학에 일제히 배포 되어 한국성서대학의 이름이 한껏 빛을 내고 있다.

미니설교

#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 마 5:13-16)

**이광삼 목사(교목실)**

청소년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착하게 (?) 바라보고, 신뢰감으로 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질타하고 실망감을 표현한다. 목사로서 안타깝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한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나를 포함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오고 있었던 결과는 아닐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다. 세상의 악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소금과 빛이 " 되라 " 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 " 이다 " 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게 비쳐야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잘못 가고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자.

## 2 학기 개강 첫 4 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

전공교육부 ( 부장 조윤경 ) 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 학기 첫 4 주간을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4 주 후 비대면 수업 연장 여부도 코로나 19 확산 추이와 공동체내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발생 시의 수업운영원칙은 총개설 강좌의 1/3 강좌를 대면수업 및 2/3 비대면을 겸한다. 최악인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가 선포되면 무조건 전 과목 비대면 수업 원칙을 지난달 밝힌바 있다.

안민혜 ( 성서 3) 학우는 여름방학 끝날 쯤 진정기미를 보여 대면수업에 희망을 가졌는데 상황이 악화돼 거리두기 3 단계까지 고려중이라니 실망감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하나님을 바라보자" 등 3 개 가이드라인 제시

### 강 총장 , 2 학기 개강예배 권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KBU 빛을 발해야

▲ 강우정 총장이 개강예배에서 권면하고 있다.

2 학기 개강예배가 24 일 ( 월 )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지침에 따라 교직원만 참석하였고 학우들은 온라인을 통해 개강 예배 현장을 지켜봤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을 통해 2020 학년도 2 학기 우리대학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3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코로 19, 재정적 위기, 입학자원의 격감 등 현실의 폭풍에 두려워 말고 우리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앞만 보며 나가자고 말했다. 둘째는 주어진 임무를 재확인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대학에 주어진 본래적 임무이다. 코로나 19 의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임무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셋째는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자고 말하였다. 그는 이 시대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한다. 사단의 교묘한 움직임, 마귀의 어떤 부드러운 접촉도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KBU 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 진다며 강하고 담대함을 견지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권면하였다.

이에 앞서 가진 개강예배에서 유정선 교목실장은 ' 우리는 ' ( 렘 1 장 ) 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 전한 유다 왕국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우리는 혼란 속에 2 학기 개강을 맞는다. 죄악에 속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성찰해 보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의 삶으로 회복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고 말하였다.

남유진 총학회장은 대표기도를 통해 코로나 19 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처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성서공동체 모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올해 밀알훈련
## 각 학과별로 완주

### 코로나 19, 폭우 , 폭염 속에서 꿋꿋이 해 내

▲ 학우들이 예배당에서 폐회예배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버스가 대기중인 곳으로 향하고 있다.

2020 학년도 신편입생 밀알훈련이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8 월 14 일 ( 금 ) 성서학과를 시작으로 21 일까지 (18 일 사복 , 19 일 영보 , 20 일 컴소 , 21 일 간호 ) 진행되었다 . 2 박 3 일의 밀알훈련은 코로나 19 때문에 1 일 단축훈련으로 계획했는데 설상가상 격으로 8 월 15 일의 ' 광화문 집회 '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모든 집회를 자진 취소해 달라는 교육부와 포천시 등 정부기관들의 무언의 압력 속에서 강행되었다 .

학교 훈련 담당자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훈련에 임하는데 반하여 정작 1 학년 훈련생 학우들은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의연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였다 . 오히려 2 박 3 일 과정이 1 일로 단축된데 대해 ' 우리 학년은 행운이다 ' 라는 분위기 마저 감지되었다 .

훈련생들은 당일 학교에서 아침 8 시 버스로 출발 , 센터에 도착 후 개회 예배를 가졌다 . 이후 조별로 자작나무 숲 근처로 이동 , 잡목 처리 및 수풀 제거하기 등의 짧은 작업에 참여했다 . 준비된 도시락으로 동기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었고 오후에는 센터내 개설된 임도와 능선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자신과 대화해 보는 침묵 산행을 가졌다 . 폐회예배가 이어졌고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비전 등을 성찰 , 정립하는 성찰저널 작성을 끝으로 밀알훈련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 됐다 .

밀알훈련기간 중 일기가 고르지 않은 것은 전통처럼 되어 있다 . 올해도 성서학과와 간호학과의 훈련일인 18 일과 21 일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 작업은 중단되고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지만 모두 물에 흠뻑 젖고 말았다 . 그러나 비가 개인 틈을 타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였다 .

이번 밀알훈련에는 대상자 287 명중 251 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209 명 ( 83%) 이 참여했으며 자원봉사자 91 명이 합류해 훈련의 전과정을 섬기며 도왔다 . 참가학우들은 버스 탑승 전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거쳤고 모든 일정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

## " 하나님이 빚어낸 능력과 힘 " 의 현장

### 1 일 단축 밀알훈련기

조민영 ( 성서 1)

단 하루의 밀알훈련 과정에서 나름대로 밀알정신 성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의 구절이 오늘 본 푸르고 웅장한 잣나무와 자작나무로 가득한 멋진 경관을 만들어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 선배들의 시간과 땀과 노력이 빚어낸 열매로 우리는 큰 감동의 시간을 누린 것이다 . 웅장한 자연은 물론 세찬 폭우와 뇌성 , 이어진 폭염도 하나님의 빚어낸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 앞에서 한없이 낮은 스스로를 보았고 반대로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

힘든 등산길에서는 앞 사람의 자취를 밟아 걸었고 다시 뒷사람의 안위까지 걱정하며 발걸음을 내딛었다 . 서로를 의지하며 염려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관계임을 생각하게 하였다 .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며 손잡아 이끌어 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큰 감사와 감동을 받았다 .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써주고 도와주신 이 분들의 모습에 나 역시 이들처럼 주변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핸드폰을 잠시 멈추고 동기와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벽을 허물고 함께 교제하며 동행해 보는 여러 순간들이 행복한 밀알훈련이었다 .

##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집중 조명
## 기남서 목사 부흥회, '아버지 되심'

▲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남서 목사

2020 학년도 2 학기 부흥사경회가 8 월 25 일 ( 화 ) 부터 28 일 ( 금 ) 까지 나흘간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기남서 목사 (38 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 가 '아버지 되심'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부흥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강화에 따라 교직원만 참석하였고 학우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임했다.

**25 일 ( 화 ) _ 그리하였더라면** ( 삼상 13:5~15)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지적한 것은 불순종이다. 만일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결과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이어야 한다.

**26 일 ( 수 ) _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 출 16:31~36)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탱해 준 양식이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셨다. 믿는 우리에게 뉴 노멀은 없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로 동일하셨고 현재도 주의 말씀이 오리지널 노멀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계획 속에서 대대로 사용해 주신다.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자.

**27 일 ( 목 ) _ 네 믿음이 크도다 !** ( 마 15:21~28)

각 사람은 각자의 삶마다 다양한 태풍들로 상처 받는다. 가나안 여인은 아들이 마귀 들린 것이 무거운 상처요 짐이었다. 그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주저않고 자신은 '개'와 같다고 말하며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개'가 아닌 자가 누구인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된다. 자격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쌓아가자.

**28 일 ( 금 ) _ 자기 자녀에게 하듯** ( 살전 2:7~13)

바울은 복음전도에 대해 아버지의 따뜻한 심정과 유모가 자녀를 정성껏 키우는 헌신적인 삶의 자세로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 전도에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며 밀알의 사명자가 되어주기를 강조하였다.

## 정휘진 국장
## 대학재정감사단 점검위원 선정

###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

▲ 정휘진 국장
( 법인사무국 )

법인사무국 정휘진 국장이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20 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위원에 위촉됐다.

점검위원은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감사를 실시할 때 교육부 직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 및 CPA 들과 함께 해당 대학에 나가 대학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등을 회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점검위원은 감사업무의 기본관점을 바탕으로 내부자의 시각에서 현업의 위험요인과 대처방안까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위촉받게 되었다.

교육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40 개 대학을 대상으로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을 갖게 되며 정 국장은 위원들과 함께 '사학기관 예 · 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우리대학에 부임하기 전 외국계 은행 감사부에서 5 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행한 내부감사자 CIA(Certificate of Internal Audit) 교육을 이수하였고 한국성서대학교의 내부감사 tool 인 '내부감사 및 위험관리 모형' ( Internal Audit – Risk Control Matrix) 을 개발, 적용하는 등의 선진 감사제도를 학교회계업무에 접목해 왔다.

## 본교 평생교육원 ' 집합보수교육위탁기관 ' 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등 진행

우리대학 평생교육원 ( 원장 최육렬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시 ' 집합보수교육위탁기관 ' 에 선정 (2020.3.1~2021.2.28) 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 대상의 일반직무교육 심화과정 및 사전직무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원장 대상의 일반직무교육 심화과정반을 운영 중인 곳은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유일하다 .

지난 6 월 , 원장 일반직무 심화교육 1 기 (6.22~26. 40 시간 ) 평일반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원장 사전직무교육 2 기 (8.21~9.26, 80 시간 과정 ) 금 · 토반 92 명이 수강중이다 . 올해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코로나 19 때문에 온 · 오프라인으로 병행돼 실시된다 .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의 어린이집 원장 보수 교육은 보육 이론과 리더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활용법 등의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 . 본교 영보학과 교수와 학계 내 명망있는 센터 소장 등이 강사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원장들은 4.7 점 (5.0 만점 ) 으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 어린이집 원장은 매 3 년마다 연 1 회의 보수교육과정 (40 시간 , 16 과목 ) 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원장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김영직 평생교육원 팀장은 " 원장 보수교육이 원장 자녀의 대학 선택이나 자신의 대학원 진학까지 KBU 로 적극 검토할 만큼 우리대학에 우호적인 시선을 갖게 한다 " 고 말하였다 .

평생교육원은 원장 일반직무교육 ( 심화과정 ) 3 기가 10.16~10.31 까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 이밖에도 2 학기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마을축제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 콘서바토리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예정되고 있다 . 김 팀장은 이와 함께 교육이 주로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다보니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상당하다며 모두에게 거듭 감사함을 나타냈다 .

## 대학수시접수 코로나로 불확실성 높아져

### 입학관리팀 , 성서공동체의 전방위적 홍보 요청

▲ 2021 학년도 입시요강 포스터

"2021 학년도 대학수시입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입시이다 . 더구나 좋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 수시원서접수 (9 월 23 일 ~28 일 ) 를 약 한 달 앞두고 신지수 입시팀장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 19 여파가 대학수시입시지원 과정을 송두리 채 엎어 놓고 말았기 때문이다 .

매 해 여름방학기간 중 대교협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던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올해는 전격 취소되었다 . 이밖에 권역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선하는 입시설명회들도 대부분 무산된 상태다 . 우리 입시팀이 서울과 수도권지역 고교를 방문하여 실시해 온 입시설명회도 예년에는 25 회 ~30 회를 주최하였는데 올해는 15 개교로 줄었다 . 그나마 설명회장에 나온 학생들도 턱없이 줄었고 마스크를 착용하다보니 개개인의 반응 파악도 쉽지 않았다 . 학생과 대면으로 주고 받았던 접합점의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간 상태여서 지원자 흐름조차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 .

신 팀장은 " 지원자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촉각을 곤두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 최후의 보루는 동문들이다 . 우리 동문들께서 입시철마다 학교를 응원해 줘서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낳았다 . 그 외에 학우들 , 소속 교회 목사님들 등 성서공동체의 전방위적 도움이 필요할 때이다 .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 고 말하였다 .

신 팀장은 성서대학교회가 2021 학년도 성서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1 학기 등록금 전액을 부담해 주겠다는 소식을 국민일보 (8 월 14 일자 ) 등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성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듣고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입학관련 문의 : 950-5403 신지수 입학관리팀장

## 3 남매가 KBU 재학 중 아빠 ( 김남용 목사 , 48 회 ) 도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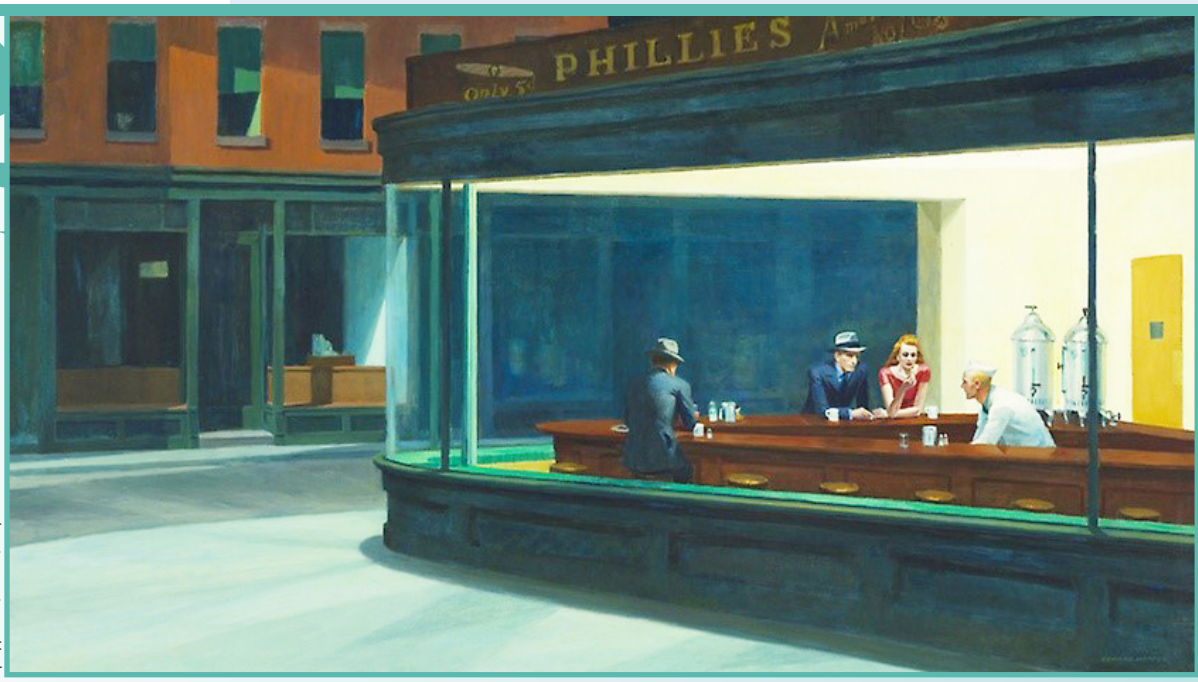
경아 ( 영보 4)
노아 ( 성서 3)
수아 ( 성서 1)

한 가족 3 남매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아빠도 성서대 동문이다 . 화제의 주인공은 김경아 ( 영보 4), 김노아 ( 성서 3), 김수아 ( 성서 1) 학우들 3 남매다 . 아빠 김남용 목사 ( 충남 공주 , 행복한 두만리교회 담임 ) 도 지난 2004 년 학부 (48 회 ) 와 신대원 (18 회 ) 을 졸업하고 사역중이다 . 가족이 KBU 공동체인 셈이다 .

3 남매는 모두 우리대학의 어린이 , 청소년밀알캠프 출신들로 2 번 ~ 5 번까지 참석한 단골 수련생들이다 . 이 캠프를 통해 아빠가 졸업한 성서대학을 경험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의 멋진 모습에 대학 진학도 자연스럽게 성서대학으로 향했다 . 3 남매의 진로는 각각 경아는 어린이집 원장 , 노아는 농촌 목회자 , 막내 수아는 신학자를 지망하고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여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김 목사는 요즘 무척 바쁘다 . 벼농사와 공주의 특산물인 밤농사 , 그리고 흑염소 100 여 마리를 키우려면 쉴틈이 없다 . 요즘은 단골이 늘어 흑염소나 밤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하다 . 시골 정착 20 년의 김 목사는 올해부터 마을 이장과 체험마을까지 운영해야 돼 더 바쁘다 . 농촌목회자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할 뿐이다 . 김 목사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마무리 하였다 .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

##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 호




http://cafe.daum.net/Jesus7400

### 그의 빛은 외롭다

1942 년 그려진 이 그림은 보기에도 지독하게 외로워 보입니다 . 실내임에도 중절모를 쓴 남자는 등을 진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 자신을 아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외면의 등입니다 . 같은 중절모를 쓴 또 다른 남자와  한 밤중에도 눈에 띄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없습니다 .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직원의 얼굴도 무표정입니다 . 그의 표정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잃은 것 일수도 있습니다 . 삶의 버거운 무게가 그의 굽어 보이는 등에서 느껴집니다 . 허공을 향해 있고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 탁자 위로 놓여있는 팔은 낮에 겪은 일들로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누군가 그림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림에서 느끼는 단어는 적막과 외로움 그리고 빛과 어두움입니다 . 다만 호퍼의 빛이 어둠만큼 외롭고 무거워 보입니다 . 여기가 뉴욕의 한 거리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

사진으로만 보던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새는 사람들 (Nighthawks) 을 시카코 미술관에서 봤을 때 떠오른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 그는 같은 땅에서 태어난 반 고호를 흠모했는데 그의 일기에 나온 한 문장이 제게 호퍼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 “반 고호의 노란색은 따뜻하고 에드워드 호퍼의 노란색은 차갑다” 실제 본 호퍼의 노란색과 빛은 헨리 나우엔의 말보다 더 차갑고 추워 보였습니다 . 자신의 그림에서 풍겨지는 고독과 외로움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던 호퍼도 이 그림만은 북적이는 대도시의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 호퍼는 카페 유리창 밖 어둠 속에서 카페안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 마치 당신이 . 관람자가 되어 이 그림을 바라보듯 … 어쩌면 호퍼는 그림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

너만 외로운 게 아니다 . 너만 고독한게 아닐거다 . 모두가 다 외롭다 .

## 학생생활상담센터장 김정숙 ( 간호 ) 교수 임명

▲ 김정숙 센터장
( 학생생활상담센터 )

간호학과 김정숙 교수가 9 월 1 일자로 학생생활상담센터장에 임명되었다 .

김 교수는 학부 간호학과장 , 일반대학원 초대 간호학과장을 역임한바 있다 . 김 교수는 상담센터장이 관례적으로 담당해 온 위기학생안전망위원회 (NSLB) 위원장직도 동시에 맡게 된다 .

## 월계우리가족상담소장 진양희 씨 임명

▲ 진양희 소장
( 월계우리가족상담소 )

월계우리가족상담소장에 진양희 소장이 승진 임명되었다 . 진 소장은 안양대 기독교육학과와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13 년부터 최근까지 월계우리가족상담소에서 상담사 및 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

진양희 소장은 " 지역사회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을 섬기는 상담소가 되겠다 " 고 말했다 .

월계우리가족상담소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예방 및 치료와 개인 및 가족관계회복을 돕는 상담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성서대학 살리기 『KBU 2020 캠페인』

### 안희원 원장 , 5 백만 원 후원

서울 강서구에서 늘기쁜치과를 운영하는 안희원 원장이 어려운 학우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5 백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

안 원장은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 온 성서대학이 어둠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학생들이 소명을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였다 . 안 원장은 2 년 전 복음관 승강기 교체에 2 백만 원을 후원하는 등 우리대학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이다 .

**성서대학살리기 『KBU 2020 캠페인』** ( **누계 230,471,599원** 2020. 2. 1~2020. 8. 31)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5,600,000원)

| | | | |
|---|---|---|---|
| 안희원(일반) | 5,000,000 | 오윤선 (교직원 및 가족) | 600,000 |

**약정 후원자** (합계 52구좌, 연간 약정 납입 예정액 6,240,000원)

| | | | |
|---|---|---|---|
| **동문 및 가족** | | **교직원 및 가족** | |
| 20구좌 | 유광석 · 민경홍 | 3구좌 | 곽규상 |
| 3구좌 | 김오권 손승현 | 2구좌 | 김중완 박은주 |
| 2구좌 | 금촌성서교회 장재경 | 1구좌 | 윤혜진 장혜지 조아라 |
| 1구좌 | 서은숙 조유민 | **일 반** | |
| | | 10구좌 | 소망교회 |

**합계 11,840,000원**(일반후원 + 약정후원) 『**KBU 2020캠페인**』 목표금액 5억원(46% 달성)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 보내지 못한 편지

남 장로님,

편지든 뭐든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답을 써야지 우물쭈물 하면 늦는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도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늦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안에서 남 장로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명우 장로, 사망, 자전거 타다가 전복 – 이런 단어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차는 혼자 굴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좋은 아들의 귀환을 ..." 그렇게 심통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 장로님! 만날 때마다 항시 맛있다고 데려간 집은 (인천 짠물답게) 중저가의 아담한 식당들. 한 번도 화려한 식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성서대학을 위해서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크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보내 준 마지막 email 에는 월 – 금 까지 빠짐없이 KBU 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곳에 KBU 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이 email 은 마지막 보내 주신 email 에 대한 답장입니다. 읽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냅니다. 장로님의 장례식에는 꼭 가보고 싶어요.

강우정

남명우 장로는 내가 장로로 섬기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점차 예수에 미친 복음전도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온 그는 MDI 라는 기계류 수출업을 해서 단단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을 복음전도를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2000 년 내가 성서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매달 100 달러씩 보내 준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5 월 21 일에 $700.00 을 보내왔고 이틀 뒤인 5 월 23 일 소천 하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 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원 컬럼**
양승용 직원(교목실)

## 김밥천국과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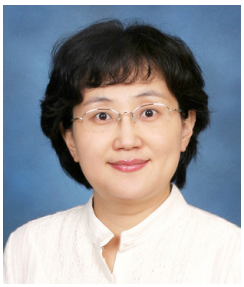
학부 4 학년 때 꿈과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졌다. 누구나 그렇듯 이 길이 내게 맞을까? 혹시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등의 고민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너는 '김밥천국' 이 되고 싶니, 아니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 이 되고 싶니? 둘 중 어떠한 것이 좋고 나쁘다 보다는 네가 선택하면 된단다." 이 말을 놓고 나는 한참 동안 생각해 본 기억이 있다.

김밥천국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게 한다. 다양한 사람의 요구까지 채울 수 있어 좋다. 또한 솜씨 좋은 어머니가 해주신다면 다른 전문점 부럽지 않은 입맛충족에 가성비까지 얻곤 한다. 그러나 김밥천국을 맛집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모두의 입맛에 적당한 레시피와 다양함을 무기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맛집이라 부르고 있는 전문 음식점은 주인이 보통 한 가지 메뉴를 전문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차려낸다.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맛' 한 가지로만 승부한다. 그렇기에 값이 비싸도 서너 시간씩 줄서서 대기해가며 먹는다. 소문이 나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만이 없다.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맛집도 다른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다. 맛에 대한 주인의 고집이 있는 만큼 모두로부터 맛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는 호불호 때문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장점을 잘 배워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성서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공에 대해 전문성을 갖되 다양성까지 겸비한 성서인이 되는 건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로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기도, 또한 본업인 공부에 최선을 쏟다 보면 머지않아 김밥천국과 맛집의 장점을 다 겸비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



**교수 컬럼**
강정원 교수(영유아보육학과)

## 꿈과 삶의 사이에서

수많은 학문 중에 나의 전공 선택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인 학문이기 때문이었다. 고 2 새해 첫 주일 아침 구슬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을 선생님은 순식간에 하나로 모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유치부 예배를 드렸다. 그녀의 전문성은 너무도 놀라웠다. 나의 꿈은 그렇게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의 삶은 꿈과 그리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꿈은 나의 푯대이고 삶은 나의 좌표일 텐데 푯대를 확인하는 횟수는 감소한다.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이걸 왜 해야 하나?' 말문 막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 (big picture) 의 한 점이었음을 확인할 때야 비로소 의미를 찾는다. 의미는 꿈과 삶 사이의 선분이 된다.

제자들이 찾아와 눈물 똑똑 떨어뜨리며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한다. 위기의 순간 찾아와 주니 고맙기만 하다. 휴지를 뽑아주며 한참을 듣고 있다가 내가 하는 일이라곤 꿈과 삶 사이의 선분을 찾게 하는 것이다.

많은 세월 지나고 보면 그 선분이 확연히 진하고 굵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두려워 가슴 턱턱 막혀 희미해 찾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을 잔뜩 고였던 눈에서 희망과 용기의 빛을 확인한다. '괜찮아 견뎌내자' 고 그 전장 같은 현장으로 제자의 등을 떠민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꿈조차도 내가 싫어하는 일이 절반 이상이라며 다독인다.

오늘도 꿈과 삶의 사이에서 선분을 찾기가 계속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일은 상관이 있는가?

**외래교수 컬럼**
최미정 교수(학술적 글쓰기)

## 함께하는 '존재의 삶'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재해 등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미래에 대한 경고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그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소수인 듯하다.

사실 우리에게 닥쳐온 질병이나 재해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끊임없는 소유욕에서 기인한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에서 자본주의적 삶의 양태인 '소유의 삶' 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존재의 삶' 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또한 '과잉생산', '공동체 와해', '자연파괴' 등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생명 (Life) 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석학들의 이야기가 어렵게 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좀 더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먹는 것이 단순히 입맛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이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육식의 종말』 에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육식을 선호하는 인류의 식생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인류가 먹고 남을 엄청난 양의 곡물과 물이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육식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덜 소비하고 더 존재" 하는 삶의 양식을 실천할 때라고 본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 라 면

기숙사나 자취생활을 해 보지 않았지만 평소 라면은 좀 끓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라면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고 의문 제기 할 수 있겠지만 라면은 끓이는 사람마다 그 맛이 다릅니다. 우선 국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좀 넉넉하게 면을 건져 먹고 국물에 찬밥 덩어리와 신김치를 얹어먹겠다면, 면이 약간 떠 있다는 느낌 정도로 물을 부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물형보다 짜파게티형을 즐깁니다. 국물은 최소로 잡고 라면을 끓인 후, 계란을 면발 위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이때 계란 흰자는 면발과 면발 사이로 흘러들게 하고, 노른자를 사뿐히 면 위에 걸터앉게 합니다. 가급적 젓가락으로 그 모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노른자는 노른자대로, 흰자는 흰자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라면을 냄비 채 먹지 않는 겁니다. 냄비는 냄비의 길이, 그릇은 그릇의 길이 있는 법입니다. 뜨거운 라면을 차가운 사기그릇에 부으면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절한 만남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라면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라면은 백종원씨가 소개한 비빔면입니다. 비빔면을 요리하며 제게도 손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설을 제가 썼습니까?" 하고 놀란 어느 소설가의 고백은 아니지만 저도 이걸 제가 요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1. 중간 사이즈의 프라이팬에 물을 3 분의 2 정도 넣습니다. 2. '끓인다.' 라면은 뚜껑 없이 끓어야 제 맛입니다. 3. 물이 끓어오를 때 라면과 스프 건더기를 넣습니다. 비빔면은 진라면이 좋고 건더기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4. 뜨거운 물은 버리고 동시에 찬물을 붓는데 면발이 탱탱해 집니다. 5. 식용유(올리브유 안 됩니다)를 설탕스푼으로 두 개 정도 넣어줍니다. 6. 라면 스프는 절반만.(다 넣으면 짭니다) 그리고 식용유에 섞여 있는 라면 면발을 평안한 마음으로 비빕니다. 위로 아래로, 옆에서 위로, 아래 옆으로 ….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비빔면이 됩니다.

'아! 목사님 이게 스프 맛이지 무슨 맛입니까?' 할지 모르는데 …. 아닙니다. 스프맛이 아니라 설명하기 묘한 맛입니다. 국수 비빈 것도 아니고 라면을 끓인 것도 아닌, 그 중간 쯤의 묘한 맛입니다. 오이를 잘 게 썰어 올려 드시거나 김조각을 넣으면 좀 더 감칠맛이 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음식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것과 마지못해 먹는 것은 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도 못 드신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4

### 학교종 _ 김메리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하자

http://cafe.daum.net/Jesus7400

'조오옹'(鐘) 하고 발음하니 종의 울림이 귀에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킨다. 교회 종탑에서 학교 종탑에서 울리던 시간 알림이는 이제 추억 한 켠으로 밀려났다. 새벽을 가르며 마음을 파고들던 교회 종소리도, 걸음을 재촉하며 뛰게 했던 학교 종소리도, 이제는 무음이 되어 헛간에 묻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헛간에 잠들어 있던 종소리가 '경종'(警鐘)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다. 위급함과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이 되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교회도 학교도 갈 수 없다고, 바깥출입도 자제하라고,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하라고, 전 세계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

경고를 향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때앵 때앵 때앵' 우리 안의 벽을 때려 맑은 소리가 나는 날, 교회의 낡은 종탑도 학교의 경쾌한 종소리도 다시 울려날 것이다. 선생님이 기다리는 학교로, 학생들이 사이좋게 공부하는 학교로, 그리고 교회로, 빨리 달려가고 싶다.

대학 어린이집

▲ 쾌적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한 화장실 내부

## '화장실이 예뻐졌어요'

대학어린이집은 하계자율보육기간인 7.31~8.6 까지 1 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화장실 환경이 바뀌면 간혹 용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내부가 쾌적하면 심리적 안정을 낳아 거부감도 차츰 줄어든다.

이번 리모델링은 가급적 이러한 면 등을 고려,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심미감과 친근함이 깃든 디자인을 선택했다.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를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동시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내부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디자인을 접목시켜 친근함과 심미감을 낳도록 배려했다. 아이들은 화장실이 무척 예뻐졌다고 말하며 코로나 19 로 인한 손 씻기 활동 및 화장실 사용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기쁨반 박해정 교사** ]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 유튜브에 개설된 '밥 잘 먹는 신사' 메인 화면

## 비대면으로 만나는 복지관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복지 현장에도 비대면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월계복지관은 기관 내 영상 촬영용 공간을 마련하고 비대면 소통 창구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남성 홀몸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밥 잘 먹는 신사' 비대면 요리 활동상을 유튜브로 담아 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첫 방송은 도토리묵 김치 무침과 참치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사전에 전달한 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앞으로도 월계복지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변화되는 환경에 민첩히 대응하며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한다. [ **홍유민 사회복지사** ]

꿈빛 어린이집

▲ 유아들이 천연 발효액을 만들고 있다.

## 생태친화 어린이집 프로젝트

꿈빛어린이집은 지난 7 월 '서울시 생태친화 보육' 사업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생태친화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 일 유아들과 함께 '천연 발효액'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평소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발효액인데 냄새를 직접 맡아본 유아들은 "선생님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며 낯선 반응을 보였다. 요즘은 천연 발효액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발효액의 친환경적 역할과 효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유아들은 서로 협동심을 발휘해 만드는 과정에 정성 쏟는 모습을 보였다. 발효액이 완성되기까지는 5~7 일이 지나야 한다. 유아들과 이 과정을 관찰한 후, 가정에서도 발효액을 사용하도록 적용해 갈 예정이다. [ **초롱반 호한나 교사** ]

성서 대학교회

▲ 태국 쑥짜이 고아원에서 생활중인 아이들이 함께 모였다.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개설

성서대학교회는 한국성서대학교의 내년도 성서학과에 입학할 신입생(약 65 명) 전원의 1 학기 등록금(국가 장학 Ⅰ.Ⅱ유형, 기타 장학 제외 등) 약 8 천 8 백만 원을 지원한다. 미래세대의 목회자를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결정하였다. 이웃사랑헌금 (300 만원) 으로는 태국의 쑥짜이 고아원에 정수 시설을 지원했다. 정수기 설치로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었다.

이와 함께 16 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개설했다. 성도들은 교회 소식을 잘 접할 수 있고 주일 설교 영상을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상황이다. 주께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 **오종철 목사** ]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 관계증진프로그램에 따라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 '놀(면서)자(란다)' 교육의 안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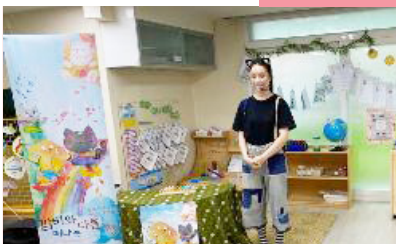
상계5동 어린이집

▲ 건강한 식습관 교육을 위해 유아들이 '꼬마늑대를 도와줘' 동화를 듣고 있다.

늘사랑 어린이집

▲ 유아들이 '수박 샤베트' 요리 활동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무 어린이집



▲ 장애 이해 체험 인형극 '깜비와 떠나는 다름 여행' 관람.

## 부모 – 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 19 의 위험으로 가정에서 긴 시간을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 – 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인 가정 연계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림책과 연계된 놀이과정을 경험해 본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제공한 교구, 가정연계지, 어린이집 활동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놀이로 연계해 보도록 하였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여행을 못가 미안했는데, 물총놀이로 함께 즐길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 어린이집에 감사한다며 만족함을 전해왔다. [ **맑은반 용혜수 교사** ]

## '집에서도 놀(면서)자(란다)!'

우리 센터는 관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공통부모교육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 로 온라인 부모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놀(면서)자(란다)'로 대체해 진행중이다. '놀(면서)자(란다)'는 '멋진 아이 골든벨', '멋진 아이 유레카', '아이마음 헤아리기', '아동학대예방' 등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이수한 총 707 가정에 관련된 놀이키트를 가정에 제공해 주었다.

배송된 놀이키트에는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과 연계,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한 관계형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갖기 등의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참여한 부모들은 '교육 동영상이 짜임새 있어 좋았고 선물도 받아 더 좋았다. 코로나로 힘든 엄마와 아이들에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 고맙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 **보육전문요원 한민희** ]

##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난 7 일,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로 건강한 식재료와 식습관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간을 가졌다. 만 3~5 세 유아들에게 '꼬마늑대를 도와줘!' 제목의 동화를 들려주고 바른 식습관과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안내 등이 진행됐다. 먼저 동화가 유아들의 눈높이와 잘 맞아 흥미를 높여 주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에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고 동화 속 내용도 나누었으며 '꼬마늑대'를 도와주는 확성기 제작까지 참여하였다.

점심에 먹는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 봤는데 영유아 먹기에 알맞은 저염도가 확인돼 만족스러웠다. 조리실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식습관과 건강한 음식 등의 정보도 배웠다. 유아들은 전체 교육이 끝난 후에도 음식 이야기와 놀이를 이어가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됐다. [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

## 달 샤베트? 수박 샤베트!

늘사랑어린이집은 지난 19 일 '수박 샤베트' 요리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먼저 '달 샤베트' 그림책을 감상했다. 내용은 무더운 여름철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그만 아파트가 정전이 되고 만다. 심한 무더위에 반장 할머니는 더위를 식혀줄 '달 샤베트'를 만들어 주고 달이 사라져 생활 터전을 잃은 옥토끼에게는 달맞이꽃으로 달을 만들며 추억에 젖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들은 수박을 갈아서 지퍼백에 미리 얼려 놓은 수박 샤베트를 눌러 보고 수박도 직접 자르는 탐색 과정에 참여했다. 수박을 연상케 하는 컵에 자른 수박을 담고 샤베트를 올려 그 위에 후르츠 칵테일로 멋진 요리도 완성시켰다. 동화를 통해 상상하고 수박 샤베트까지 만들어가며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까지 깨닫게 한 시간이 됐다.

[ **행복한반 윤영숙 교사** ]

## 인형극 관람

지난 4 일 지역사회 연계의 일환으로 장애 이해 체험 인형극인 '깜비와 떠나는 다름 여행'을 관람하였다. 인형극 관람을 통해 등장하는 두 친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 '까미'와 인사를 나누는 법도 배웠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러 불편함과 이들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하며 장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보는 자리를 가졌다. 유아들은 까미를 위해 "내가 누구인지 말로 소개해 줄래요"라고 말하거나, "제가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줄 수 있어요"하며 까미의 불편함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 **충무어린이집 노미란 교사** ]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 | | | |
|---|---|---|---|
| 강우정(총장) | 600만원(운영) | 한국라이온스 | 200만원(장학) |
|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 610만원(운영) | 이희숙(동문) | 100만원(운영) |
|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 500만원(장학) |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 100만원(장학) |
| 안희원(늘기쁜치과의원 원장) | 500만원(장학) | 밀알성서교회(최정재 전도사) | 100만원(장학) |
| 경성교회(박종걸 목사) | 210만원(장학) |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 100만원(건축) |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만원(장학) | | |

##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0.9구좌 김진영
1구좌 강애솔 곽미화 김경수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유미 김유진 김재현 김진영 마효정 문기철 박향식 반해빈 배민정 신경자 심순자 여지은 오은희 이민화 이신재 이은영 임찬웅 장희남 전소영 정성희 최예슬 최종운 홍선호
1.5구좌 이예람
2구좌 류충열 성낙표 신정섭 이기주 전택복
3구좌 반세호 양혜영 이다윤 이재국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박기영 박대종 신연정
2구좌 홍은선
3구좌 박재완 배정숙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강신애 구자람 김혜성 박남일 윤혜진 장혜지
2구좌 김장호 박은주 장길정
3구좌 권오섭 박재진 유다운
10구좌 김형미 박성환
13구좌 곽규상 한진호

**서문교회**
1구좌 임용주

**석계제일교회**
1구좌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2.5구좌 안수집사회

**성서선교회**
1구좌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5구좌 한금례

**풍암교회**
1구좌 유금례

**효성교회**
1구좌 진은숙

**일 반**
1구좌 구필례 김인호 박영미 유해연 이원주 조여원 황영수
2구좌 서병준 정주아
20구좌 유광석 민경홍

**단체 및 기관**
3구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한길교회
10구좌 소망교회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민이삭 정다운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경 김민아 김민정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희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민경 서유미 서 융 서은숙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석배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윤솔이 윤영원 윤예서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혜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호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화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지유정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성광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금필규 길득희 김기옥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문홍 박재송 방민지 배민정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양승용 오상석 오정순 오찬양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승환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수경 임은희 임지현 장익봉 장재경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정주영 최상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상장 홍혜주 황승호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우선 김종숙 김지애 김태영 나예원 남지원 문순일 문지원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도희 양연선 양혜영 이길순 이남희 이성은 이안나 이우진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이현지 인지은 장영훈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정슬기 조서윤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예린 최흥식

## 기부자 명단

탁현정 홍석화 홍예지 황영숙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종남
김준오 김진경 남희경 문수빈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안선례
양원석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은혜 정예나 조연정 조유진
천유림 최송희 최종건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이다윤 정동주
8만원 임연식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남영란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양연주
임현필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50만원 황인숙
100만원 이희숙 이례장학

###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윤효심
이광승 이나라 이동기 이성란
이성령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용숙 정창금
최소정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이민경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2만5천원 이마리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김주은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정윤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승민 김애란
김영직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경민 윤명섭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민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정진주 조아라
조영채 조철남 조형섭 하희수
허윤민 황찬범 요시다고조
1만5천원 정지용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은실 김장호
박태용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덕원 김성호 김은영 박성범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이호섭 전영호
30달러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4만원 민찬양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원빈 김현동
박인혁 신지수 안미란 유미나
이광삼 이복남 이정희 장정순
최사랑 한재희
6만원 이성아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정원
김정원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은광 이은주 장성희 장인순
정상열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김웅기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이강동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60만원 오윤선
5천6백만원 강우정.강 진

### 부설기관

1만원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문유나 박제하 오윤아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허성보
2만원 장윤정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현애 박미애 박천순 변송이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선정
이효빈 임지혜 장나혜 탁지혜
호한나
4만원 박미선
5만원 박연희 서영숙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차 건
20만원 오동준

###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 비전교회

2만원 곽성국.장은경
3만원 장석원

###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 성서대학교회

2천5백원 이낙영
5천원 이 천 정현숙 황성모
1만원 강경혜 강유진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김겸일 김덕현 김동준
김민선 김배열 김병철 김상은
김성진 김승환 김신덕 김예지
김은미 김인영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광 김혜옥 김희현
남윤주 남지영 류 강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이숙 박주형
박혜영 방미경 백순옥 서윤희
서 훈 송인희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종철 용정자
유중엽 이가은 이경신 이관영
이노선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소정 이영희 이은영 이정숙
이정자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장근문
장인순 장홍림 전옥순 정나영
정도유 정무실 정선희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현진 최미숙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허진순 이에스더
1만5천원 김영헌 최우림 하영란
2만원 강규성 김인자 김혜련 김혜진
박선하 박성환 박온유 박천순
신양금 오경모 오은주 유정선
이영진 이윤봉 임성일 장진희
전광심 정명수 정승연 조성민
황서린
2만5천원 권경만 김미선 박태수 신재은
유형창
3만원 김문응 김원태 김일선 김현석
이숙영 조혜경 최대만 최선희
4만5천원 최강희
5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김웅기
박세건 이봉호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정갑순 최정권 한진호
10만원 이영주
12만원 김희진 정희전
610만원 성서대학교회

###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 김옥자
동두천성서섬김교회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월계성서교회 일동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무 명 현희철
김윤구.신인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2만원 김일섭 반요셉

###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6만원 주향교회

###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10만원 평화교회

###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미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정은영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우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김천수 김하람
문광철 서병준 서성원 오미선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진성용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5만원 강한성 김종무 서미혜 석지현
오계순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80달러 강숙경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정명자
100달러 강승태
30만원 박순정
500만원 안희원

###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마음교회/맘키즈푸드/목양교
회/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동신자원/바르고복
된교회/성복중앙교회/아인안
경원/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
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꿈꾸는교회
/새샘교회/우리교회/한길교회
(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상
일교회/예일에드컬/천성교회/
/평안교회(송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두
암산업(주)/만나교회/상록교회
/생명샘교회(성주)/서부중앙교
회/오감발달연구소/철원제일
교회/청평교회
13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제트전기
30만원 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회
5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100만원 동서환경(주)/밀알성서교회
200만원 한국라이온스/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210만원 경성교회
500만원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소계(20200721~20200820)
116,136,323
누계(20200301~20200820)
425,080,423